

# 유진박, 성년후견 다시 생겼다

### 지난 2017년 6월 성년후견 지정됐지만 신청 취하로 무산 매니저에 사기당한 뒤 재신청...어머니 지인 등 후견인으로



법원이 최근 매니저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한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44)에게 성년후견 결정을 내렸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권양희 부장판사는

24일 유진박의 이모가 신청한 한정후견 개시청구를 받아들였다. 유진박의 신청후견인으로는 사망한 어머니 지인 A씨, 법률대리인 후견인으로는 B복지재단이 선임됐다. A씨와 유진박은 현재 함께 거주하고 있다.

2013년 7월 시행한 성년후견제도는 차매노인이나 발달장애인 등 정상적인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법률행위와 일상생활을 후견인이 돕는 제도다. 후견인의 업무 처리는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전제 바이올리니스트로 유명했던 유진박은 2000년대 들어 우울증으로 활동이 뜸해졌고,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있던 어머니까지 사망하자 정상적인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다.

그러자 미국에 살고 있는 유진

박의 이모가 2016년 6월 서울가정법원에 자신과 유진박의 고모를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성년후견개시신청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7년 6월 이를 받아들여 한정정신건강복지재단을 후견인으로 선임했다.

그러자 이모는 개시결정이 있는지 6일 만에 풀연 청구를 취하해 후견인 선임이 무산됐다. 이모는 매니저 김씨가 취하를 종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유진박이 김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모는 크게 후회하며 새로운 후견개시신청을 위한 위임장을 법률대리인에 전해 후견개시 신청을 했다.

서울시장에인원센터는 지난 5월 김씨를 사기와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 “누가 제2의 권력자인가”

영화 ‘남산의 부장들’ 이병헌·곽도원·이희준 포스터



‘남산의 부장들’ (감독 우민호)이 1979년 10월26일 대통령 암살사건 이전으로 돌아가, 일명 ‘부장들의 총성 경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캐릭터 포스터 3종을 공개했다.

오는 1월 개봉하는 ‘남산의 부장들’은 1979년, 제2의 권력자라 불리던 중앙정보부장(이병헌 분)이 대한민국 대통령 암살사건을 벌이기 전 40일 간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공개된 ‘남산의 부장들’ 캐릭터

포스터에는 각자의 상황과 개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이미지와 대사가 담겼다. 먼저 중앙정보부장 김규평 캐릭터 포스터에서는 이병헌의 진중하면서도 예민한 표정이 눈에 띈다. 매만진 머리, 안경 사이로 숨겨진 날카로운 눈빛이 김규평 캐릭터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듯하다. 여기에 “각하 곁을 제가 지키겠습니다”라는 인물의 대사는 그의 남다른 충성심을 느끼게 한다.

이와는 대조적인 곽도원의 전

중앙정보부장 박용각 캐릭터 포스터는 인물의 호탕한 성격을 그대로 보여준다. 화려한 슈트에 선글라스까지 착용한 박용각의 모습에서 한 시대를 호령했던 중앙정보부장의 여유를 느낄 수 있다. “각하는 2인자는 안 살려나”라는 의미심장한 대사는 캐릭터가 처한 상황을 더욱 궁금하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이희준이 맡은 청와대 경호실장 광선천 캐릭터 포스터는 한껏 찡그린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김규평과 팽팽한 경쟁구도를 유지하며 상대를 끝없이 경계하는 광선천의 성격을 포스터만으로도 느낄 수 있다. “각하가 국가야”라는 신념 어린 대사의 주인이 바로 박용의 하수인인 광선천이다.

공개한 캐릭터 포스터를 통해서 사람의 남다른 총성경쟁을 확인할 수 있는 ‘남산의 부장들’, 영화는 박통이 용인술로 사용했던 다양한 총성경쟁을 흥미롭게 다루며, 스토리의 열개를 짜맞출 예정이다.

논픽션 베스트셀러 원작을 바탕으로 영화만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남산의 부장들’은 오는 1월 개봉한다.

뉴스1

## “대한민국의 따뜻함으로 과거가 괴롭히지 않아요”

양준일 ‘슈가맨3’ → ‘뉴스룸’서 전한 감동



“(손석희) 사장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이 저를 받아주는 따뜻함이, 그걸 다 이렇게 녹여주셔서 더이상 저의 과거가 저를 괴롭히지 않는 것 같아요.”

“비운의 천재”로 불린 가수 양준일이 뜨거운 환영을 받고 있다. JTBC ‘투유 프로젝트-슈가맨3’ (이하 ‘슈가맨3’)를 통해 소환된 양준일은 JTBC ‘뉴스룸’까지 출연, 다시 한 번 특별한 감동을 전했다.

양준일은 지난 25일 오후 방송된 ‘뉴스룸’에 출연해 손석희 앵커로부터 “슈가맨”는 제가 잘

했다. 굉장한 감동적인 시간이었던 것 같다”는 칭찬을 듣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슈가맨3’ 방송 이후 변화도 이야기했다. 미국의 한 식당에서 서빙일을 한 양준일은 “슈가맨” 이후 미국에서 많은 교포들을 만났을 텐데 여전히 서빙을 했냐”라는 질문에 “너무나도 신기한게 같은 손님들을 서빙하는데 그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 그리고 태도가 너무 바뀌었다”며 “제가 그런 가수인지, 그런 아티스트인지 몰랐다고 하면서 제가 서빙한 것 자체를 영광이라고 표현해주셔서 너무 어색했다”고 답했다.

양준일은 한국에서 정착할 계획도 전했다. 그는 “급하게 들어와서 한 번 다시 정리하러 들어가긴 해야 한다”며 “결국은 한국으로 와서 정착을 하고 싶다는 소망이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그는 “매날 꿈 같다. 비행기에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라는 방송이 나오고 아내하고 박수를 막 쳤다. 너무 기뻐서”라며 “저 너무나너무 진짜 꿈

같다”며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과거 가수 활동 당시 이야기도 들려줬다. 양준일은 “당시 인생이 그냥 롤러코스터 같았다. 실질적으로 제가 그 삶을 살면서 머릿속에 있는 쓰레기를 많이 버려야 되는 상황이라 생각했었다”며 “내 과거를 보면 꼭 그제 내 미래로 그냥 이어간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 이것을 자주 버려야지 했다. 행복하기 전에 불행을 버려야 되는 것처럼, 그걸 버리는 노력을 거의 생활처럼 했었다”고 고백했다.

또 양준일은 ‘뉴스룸’에 출연한 이유에 대해 “사실 사장님을 뵈고 싶었다”며 “은 대한민국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었다. 사실 뉴스를 보고 많이 울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슈가맨”에 나와서 제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슬프지가 않았다. 그냥 현실이었기 때문에”라며 “그때 뉴스를 보고 울었던 이유는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내가 보이는구나”라는 것 때문에 많은 것이 녹아지는 것 같다. 사장님이 (앵커 브리핑에서) 저를 이렇게 표현해주셨을 때 사장님 눈에 제가 보인다는 느낌이 왔었다. 살면서 투명인간이 됐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은데, 내가 왜 존재하냐”라는 물음표가 많은데 그 물음표를 사장님이 녹여주셨다”고 고마워했다.

양준일은 “사장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이 저를 받아주

어 이에 손석희 앵커는 영화 ‘슈가맨을 찾아서’를 언급하며 “슈가맨의 원형에 가장 가까운 분이 라는 생각을, 혹시 (슈가맨) 윤현준 CP가) 그런 얘기 안 하던가”라고 물었고, 양준일은 “그 슈가맨” 통틀어서 거기 타이틀에 제일 맞는 가수였다고 하더라”고 답했다. 이어 양준일은 “제가 그 캐릭터(슈가맨)로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소중하고, 제 삶이 그간 하루 하루가 좀 재방송 같은 느낌이었었는데 한국에 들어와서는 하루가 안 끝나고 계속 가는 느낌”이라며 “그래서 정말 맨날 이게 꿈인가, 이게 꿈인가라는 얘기를 자주 한다. 그냥 감사하다”고 기뻐했다.

향후 활동 계획도 전했다. 양준일은 오는 31일 팬미팅을 개최한다며 “쇼가 2번이 있다. 슈가맨” 스타일 같이 저와 대화를 하고 거기서 노래도 하고 메모리 레인으로 다시 들어가는 팬미팅”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이런 대규모의 팬미팅이 처음이고, 그리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이렇게 박수쳐주는 팬미팅이 돼서 기대도 된다. 모든 팬들 분들이 그냥 제가 그 팬미팅에서 그냥 저의 진실한 모습을 남기고 왔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며 “시간이 되면 다 하고 싶다. 그냥 여러분들이 저를 원하시는 동안은 그것을 다 해 보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앞서 양준일은 지난 6일 방송된 ‘슈가맨3’에 출연해 큰 화제를 모았다. 양준일은 최근 온라인 탑골공원 등을 통해 화제가 되며 30년을 앞서간 무대와 놀라운 패션 감각으로 네티즌들에게 충격을 안겼던 주인공으로 여러 방송에서 수차례 그를 보고 싶다는 바람들이 이어져왔지만 좀처럼 그의 모습을 보기 쉽지 않았다.

결국 ‘슈가맨3’ 제작진은 양준일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소환에 성공했고, 양준일은 ‘슈가맨3’에서 ‘리베카’를 열창하며 등장, 여전한 그루브와 50대 나이에도 여전히 소년미, 아이돌 못지않은 열정적인 무대 매너로 모두를 또 한 번 충격에 빠뜨렸다. 41살로 높은 인지도를 기록하진 못했으나 20대 30대보다 최근 온라인 동영상에 익숙한 10대 판정단에 게 더 많은 지지를 받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 MEGABOX 광주첨단점

1관	백두산, 감쪽같은 그녀
2관	백두산
3관	시동
4관	백두산
5관	포드 V 페라리, 쥘만지:넥스트 레벨
6관	겨울왕국
7관	시동, 감쪽같은 그녀
8관	신비아파트 극장판 하늘도깨비 대 요르문간드 포드 V 페라리, 나이브스 아웃, 미안해요 리키
9관	백두산

문의전화 1544-0070  
광주광역시 광산구 엠코로 35(쌍암동)

### CGV 광주하남점

1관	겨울왕국2, 신비아파트 극장판, 백두산, 아스테릭스
2관	겨울왕국2, 신비아파트 극장판, 백두산, 쥘만지
3관	시동
4관	백두산
5관	신비아파트 극장판, 백두산, 포드 V 페라리 나이브스 아웃,
6관	백두산

문의전화 1544-1122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400번길 30 테라스 56 피크닉몰 2층